



美, 수입산 제품 PE 시장 직접적 영향 중국 및 중동 PE 시장 급성장

미국 폴리에틸렌 시장 규모 감소가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산 완제품 수입의 직접적인 용인이 되고 있다.

Nova Chemicals Corp.사의 Chirs Gick 씨는 아시아에서 수입되는 플라스틱 백이 전체 폴리에틸렌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Chemical Market Associates inc.사의 Howard Rappaport 씨는 큰 영향이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Rappaport 씨는 2003년 미국에 수입되는 플라스틱 백은 약 1백22백만개 정도이며 이를 수지로 환산하면 약 17억 파운드 정도로 이는 세

계 최대규모의 폴리에틸렌 수지 공장 2곳의 연간 생산량과 맞먹는 양으로 지난 1997년 이래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산 증가가 국내 수지 수요를 감소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Gick 씨는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산 제품 수입이 미국 시장을 망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지 시장이 크게 성장할 사실을 잇고 있으며 수입산 제품이 전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약3%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미 서부지역에서 플라스틱 백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업체는 싼값의 아시아에서 수입되고 있는 플라스틱 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정부에 임시 관세를 부과를 요청했으며 미 상무성은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수입되는 플라스틱 백에 대해 적게는 1%에서 높게는 1백

20%까지 임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Rappaport 씨는 정부가 자국산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플라스틱 백을 수입하고 있는 업체들은 임시 관세를 피하기 위해 캐나다나 멕시코에 위치한 지사를 경유해 수입하는 루트를 새롭게 확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관세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되는 플라스틱 백이 완제품이 아닌 반완제품 형태로 수입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입산 플라스틱 백에 대한 임시 관세 부과는 미국 폴리에틸렌 시장 성장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며 미국 기업들은 미국내 시장에 연연하지 말고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을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2004년과 2005년 미국 폴리에틸렌 시장은 연평균 각 4% 정도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2003년에 감소됐던 시장 규모를 회복하고 다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현상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다. 반면에 중국과 중동 지역의 폴리에틸렌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유전자변형식품 판매 허가 GM식품 라벨링 규정 적용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이유로 지난 6년동안 EU내 판매허가가 계류중에 있었던 유전자변형

옥수수 식품에 대해 마침내 EU가 지난달 19일 판매 허가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까지 비화된 유전자변형(GM) 식품을 둘러싼 EU, 미국간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물론, EU내 유전자변형 종자나 식품의 판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19일자 정오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GM식품에 대한 EU 라벨링 규정 미비로 인해 판매허가를 하지 못했던 '유전자변형 옥수수 식품'에 대해 판매를 허가한다고 정식 발표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지난 4월 18일부로 EU의 GM 식품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인체에 대한 안전과 소비자들의 선택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판매가 허가된 GM 식품은 '신선 혹은 캔에 들은 형태의 Bt-11 옥수수'로 유전자변형 옥수수다. 스위스 바이오회사인 Syntega(구 Novartis)사가 제조한 동 식품은 이번 판매허가 결정으로 인해 EU내에 즉각 수입이 시작될 수 있다.

대신 EU의 신 GMO 라벨링규정에 따라 이 옥수수를 함유한 모든 제품은 명확하게 GM 옥수수를 함유했음을 라벨링해야 한다. 집행위 결정은 향후 10년간 유효하다. 이미 유전자 변형 옥수수 곡물은 1998년 이후 수입이 허가돼 동물 사료와 오일, 옥수수가루, 설탕과 같은 식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난 1998년 2월 Syngenta사의 전신인 Novartis사가 네델란드에 동 제품 판매허가를 신청하면서 비롯된 유럽내 GM 식품 판매허가 중단 조치에 대해 세계 최대 GM 종자와 식품



생산 및 수출국인 미국은 강경하게 EU를 비난하면서 2003년 5월에는 이를 WTO에 제소하기 까지 했으며 현재 총 12국가가 이 분쟁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EU는 미국의 이 WTO 제소가 철회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EU는 현재 33개의 다른 GM 식품 관련 판매허가 신청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EU의 결정에 대해 환경론자를 비롯한 소비자보호단체에서는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 반면 반대 바이오산업계는 적극 환영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의 70%가 GM 식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F, 중국내 10억 달러 화학공장 설립
세계 최대 생산기지 구축

세계적인 다국적 화학업체인 바스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화학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총 투자규모가 11억2천만달러에 달하는 대형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상하이에 건설되는 이 프로젝트는 독일의 BASF와 미국의 Huntsman이 70%의 지분을 소유하며 나머지는 上海華誼集團, 中國石化上海高橋化工集團이 나눠 갖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24만톤의 MDI와 16만톤의 TDI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세계 최대 이소시아네이트 생산기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바스프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아시아, 북미, 유럽 등의 회사의 자산이 결합돼 좋은 합작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MDI, TDI 및 프리폴리머 생산공장 등 각각 운영될 예정이다.

MDI와 TDI를 포함하는 이소시아네이트는 자동차, 건설, 가전 등 여러 산업에 걸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의 생산에 사용된다. 현재 중국은 이들 원료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규모 생산만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중국 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0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제품의 상당량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소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스프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12년 중국의 폴리우레탄 시장은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지속해 2015년에 이르러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美 FDA, 건강강조표시 규제 강화
안전성 미 입증 제품 대책 발표

미 식품의약청(FDA)이 식품의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 FDA 청장직무대행 레스터 크로포드 박사는 미국약학실험치료학회(ASPET)와 미국 영양학회 합동 회의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으로부터 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대책을 마련 중이며 곧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 FDA는 지난 6개월 동안 미국내 기업들이 제조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또한, 외국 건강보조식품 1천1백71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켰다. 유해 성분이 들어 있거나 과대 표시로 회수 조치한 제품을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1천8백만 달러에 달한다.

FDA는 지난 3월에도 안드로스테인다이온(androstanedione)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23제품의 판매를 금지시켰다.

미 FDA는 또한 건강보조식품의 라벨 표시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FDA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연방상업위원회(FTC)와 합동으로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 표시한 건강보조식품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에는 인터넷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16사에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허위 표시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명도 공표하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하도록 명했다. 이들 제품의 대부분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흡수를 저해하여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제품이다.

FDA에선 표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데이터에 관한 지침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미 FDA는 미국에서 비만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근거 없는 체중 감량 효과 표시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제품에 대해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엔 마황 성분을 사용한 다이어트용 식품의 판매를 금지시켜 업계에 큰 충격을 줬는데 지난 4월 12일 미 연방구법원은 기업 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미 FDA의 손을 들어 줬다.

또한, 지난 3월엔 비타민D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있는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도록 하고 그 상품명과 제조자명 등을 공표했다.

이 제품엔 1회분 6캡슐의 비타민D 함유량이 4백IU여야 표시 내용과 일치하는데 제조사의 착오로 실제로는 18만8천6백40IU가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 FDA 산하 연구 기관인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건강보조식품 구입에 연간 1백80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시장엔 약 2만9천 제품이 나와 있으며 여기에 매년 약 1천개의 신제품이 발매되고 있다.

일본, 축산물에도 '유기' 라벨 표시 생고기 및 가공품 표시

일본 농수성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야채 등에서 이용이 추진되는 '유기' 표시에 대해 대상을 축산물에도 확대할 것을 결정했다.

소 및 돼지 등 축산물을 이용한 식품이 대상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사료를 먹거나, 의약품 사용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조건이다.

수퍼 등 소매점이 생고기 및 가공품에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동성은 식품의 안전성을 표시하는 일본농림규격(JAS)을 개정, 동성이 인정한 민간 기업 및 비영리조직(NPO)이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해 표시한다.

빠르면, 내년 봄에도 '유기축산물'의 라벨이 붙은 육류 등이 점두에 늘어선다. ☐